

조선의 운명과 남 유다의 멸망에 대한 정치, 경제, 종교적 관점의 비교 연구: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윤형(장신대)

1. 들어가는 말

19세기 말 우리의 최근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시대 말기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정황은 오늘날의 경우에도 데자뷰(deja vu/기시감) 될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의 결과로서 당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거머쥔 일본은 우리에게 '일제시대'라는 통한의 트라우마(trauma)를 안겼고 지금도 이 용어는 매우 불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우리나라가 통째로 잃어버린 반세기는 국민들의 의식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강점 및 해방 이후 우리는 이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제대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피해의식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7863).

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피해의식을 계속 지고 갈 것인가? 이에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지만 일본은 그럴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자기 성찰과 비판이 필요하다.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치열한 열강들의 도전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해 이런 저런 변명의 말을 할 수는 있으나 트라우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눈을 안으로 돌려 조선 스스로를 성찰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 또한 19세기 말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면적으로 고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비록 시대는 다르다하더라도 유다(예루살렘)와 조선(한양)의 멸망사건이 상당부분 겹쳐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기원전 6세기 경 남유다가 망한 과정이 조선의 멸망과정과 매우 흡사한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우선 정부 안에서 벌어지는 신하들의 정파별 소모적인 논쟁이 그렇고, 위기에 처한 통치자의 우유부단한 자세 또한 그렇다. 동시에 지배 계층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도에서 벗어나 있었다. 즉 정상적인 나라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공의와 정의’라는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나아가 위정자들이 백성들에게 질서유지를 위해 교육시킨 정신적인 이념(시온 신학)도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핵심적인 가치관이 상실된 것이다.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결론론적으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유다의 경우이지만 이 세상에 등장했었던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

도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¹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예레미야서의 남 유다와 19세기 말의 조선의 운명을 정치, 경제, 종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고 신학적으로² ‘트라우마(trauma)’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트라우마의 원인은 대체로 외부에 기인하지만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나아가 이것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조선이 절대 절명의 시대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부정적인 피해의식의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³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의 멸망사건을 신학적으로 승화시켜 구약성서라는 기록을 세계에 남기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거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신명기 역사서를 남김으로써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자기 성찰과 비판을 통해 밝히고 있다. 결국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19세기 말 조선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선교하던 선교사가 속속 들어오던 시기였다. 우리는 조선 말기를 역사적으로 반추하여 멸망의 이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신학적으로 숙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고

1 신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집 (2008년 6월), 133-171.

2 주자학 중심의 조선을 신학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이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신학적 공동체를 인식한다면 정경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서의 신학으로 과거 우리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3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심판에 따른 것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만약 조선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남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를 기다려야 한다. 조선의 멸망을 내 탓으로 인정하던지, 일본 탓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용해야 나라 멸망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찰함으로써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피해의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본 논문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를 성서에 비추어 해석한 사례는 함석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수많은 질곡이 있었으나 그것을 성서적 의미의 고난사로 보면서 고통 후 영광이라는 십자가 신앙원리를 한국 역사에 적용하였다.⁴ 그는 그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보지만, 이것을 계속 극복해왔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사인 조선 말기 부분은 지엽적으로 다룬다. 이에 비해 본고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자의 심판 선포에서 보듯이 예레미야서 관점에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문제점들을 비교 고찰하기 때문에 조선 말기의 국권상실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박은식은 자신의 저서 한국통사에서 우리나라가 대원군 집권이후 일본에 강제 합병되기까지 민족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기록하였다.⁵ 그는 쓰러린 역사를 통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면 궁극적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 책에서 한국 근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의 글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낡은 집과 같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역설하고자 하는 향후 나라의 독립이 왕과 백성 가운

4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1985).

5 박은식, 「韓國痛史」 (김태웅 역해), (서울: 아카넷, 2012). 이 책은 고종 즉위년(1863년)부터 1911년 105인 사건까지 서술한 역사책으로 1책 3편 11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데 누구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제질서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⁶ 왜냐하면 민심과 분리된 사대부 중심의 왕정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당시 우리의 역사 현장을 목격하면서 기록한 글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방인의 시각에서 본 조선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활발히 진행 중인 외부 선진문화와 분리된 삶의 현장에 대한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⁷ 김정호는 조선의 국권 상실의 요인을 주로 내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의 효율성 미약, 대안적 국가통합 이념구조의 미비, 민중의 정치적 성장구조의 취약성이다.⁸ 그의 연구가 주로 정치사상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국권상실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남유다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재구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여호야김 4년을 중요시하면서 시드기야-여호야김 4년-시드기야라는 문학적 구조 안에서 유다 멸망 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⁹ 그는 여호야김 4년이 예레미야서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70년의 확실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의 통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어떤

6 이승만, 「구한말 동북아 정세와 대한제국의 최후」 (김충남 역해), (서울: 화산문화, 2010), 57-59.

7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최형욱 엮고 옮김), (과주: 글항아리, 2014).

8 김정호, “국권상실의 정치사상적 요인”, 「한국동양정치사상사 연구」 9권 2호 (2010년 9월), 27-43.

9 김재구,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12-40.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회학은 유다에서 행한 조상숭배(렘 16:1-9)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조상숭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¹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애도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다신론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 상황을 보면 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애도의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재덕은 도시와 성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결국 경화된 시온 신학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¹¹ 그는 도시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성전신학의 도움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전자와 후자가 공간적인 차원에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본고에서 다루는 성리학에 기초를 둔 조선의 종묘사직 신앙과 대비를 이룬다. 정중호는 세력가들의 세력에 위협을 느꼈던 시드기야 왕이 실시했던 노예해방문제를 왕권강화 측면에서 바라보며 분석한다.¹² 이 논문은 유다의 시드기야와 고려의 광종의 노비해방사건을 비교하면서 본고와 유사한 틀거리를 보여준다. 정중호는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해방시킨 사건을 왕권강화 차원에서 행했다고 주장하는데, 곧 이어 세력가들이 다시 노비를 끌어온다. 그러면 결국 시드기야의 왕권강화가 실패했고 그에 따라 왕위를 상실한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렵다. 어쨌든 이것은 본고가 다룰 경제 문제와 연관되는데 무엇보다 조선의 정치 및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신분제도와 그 연관성이 있다. 앞의

10 이회학, “조상(사자)숭배와 구약성서의 애도의식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2004년 7월), 83-103. 이스라엘의 조상숭배의식 가운데 조선과 유사한 것들은 애곡, 애가, 의복 및 신체와 관련된 애도 의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애곡(렘 16:5) 및 제사 행위(렘 16:7)를 금지시켰다.

11 서재덕, “도시와 성전: 시온신학의 기원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6집 (2020년 6월), 14-40.

12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78-201.

연구들은 본고가 다룰 주제들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예레미야서 관점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종교(사상) 세 부문으로 나누어 조선 말기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 구별된다.

3. 본론

본 논문의 목표는 예레미야서의 남 유다와 19세기 말 조선의 운명을 정치, 경제, 종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제일 먼저 정치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정치는 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두 나라의 위정자가 위기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인데 이 부분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적인 분배정의를 엿볼 수 있다. 셋째, 종교(사상)적인 측면을 분석하는데 남 유다와 관련해서는 시온 신학에 대해, 그리고 조선과 관련해서는 유학(주자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것은 각 나라 백성이 지향하는 깊은 정신적 방향성과 관계가 있어 국가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

1) 정치적 측면

정치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균형감 있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이런 행위를 누가 어떤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직책을 가진 자를 통치자 또는 왕이라 칭한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들의 생각, 판단, 행위에 따라 국가(제국)의 운명이 좌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라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그나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쇠퇴기에 있다면 그 통치자의 우매함은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이런 역사가 유대와 조선의 말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유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나름 국가의 정체성을 율법에 기초하여 세우려던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년)이 갑작스럽게 죽은 후 뒤를 이어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부왕과 같이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요시아 이후 약 20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그달라를 포함하여 다섯 명이나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어쨌든 국내에서 전통에 따라 여호아하스(렘 22:11/본래의 이름은 살룸)가 뒤를 이었으나 요시아를 물리친 이집트에 의해 곧 폐위되고 여호야김(기원전 609-598년)이 뒤를 잇는다.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아시리아에 이어 이집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왕하 23:31-35).

때는 바야흐로 고대근동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사라지고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유다의 지도자 계층은 힘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이집트에 쏠려 있었다. 동시에 바벨론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 여호야김은 부득불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하고 삼년을 유지하다가 그를 배반하였다(왕하 24:1).¹³ 이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었다. 결국 이것은 지도자 계급 내에서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 여기서 왕은 중심을 잡아 나라의

13 그가 바벨론을 배반한 배경을 알아보면, 당시 유다 내부의 분위기는 이집트를 가까이 해서 바벨론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때(기원전 601년) 느부갓네살은 전방에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와 싸우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양측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일단 군대를 후퇴시켰는데 바로 이 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였다(왕하 24:1).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에 대하여는 참고, 김희보, “요시아 왕의 전사와 유다의 멸망”, 『신학지남』 183호 (1979년 3월), 17, 8-24.

힘을 결집해야 했으나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떠오르는 세력인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국가의 힘을 결집시키기는커녕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소위 ‘바벨론 코드’를¹⁴ 의식하지 못했다. 이것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아직은 미완인 약체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패권을 갖는 국가를 칭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예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¹⁵ 그러나 여호야김과 고위관리들은 이런 통찰력을 갖지 못했다. 이에 예레미야서 36장은 유다 및 예루살렘에 닥쳤던 모든 파괴적인 재앙의 근원으로서 여호야김 왕과 그의 궁중참모들의 특별한 죄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표면적으로 친바벨론파로 보여지는 예레미야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왕에게 요구하였으나 우이독경이었다.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진은 불과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 시(기원전 597년)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왕하 24:10-17). 이후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야(기원전 597-586년)를 왕위에 올렸다. 여호야김(애굽)과 시드기야(바벨론)에서 보듯이 유다는 왕을 자체적으로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다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당시의 유다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반바벨론적 감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친애굽파들이 왕을 조종했다.¹⁶ 나아가 바벨론의 포로들

14 유동기,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바벨론과 예레미야가 보도하는 바벨론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23권 4호 (2016년 12월), 143-175.

15 우리의 경우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할 때 원나라는 지는 해였고 명나라는 떠오르는 해, 즉 바벨론 코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 중기 당시 청나라도 명나라에 비하면 세력이 약해보였지만 결국 바벨론 코드를 갖는 제국을 이루었다.

16 김희보, 윗글, 20.

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선지자들이 가세하였다. 이에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예언논쟁은 정부 내에서 바벨론에 대한 지도층의 의견이 통일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¹⁷ 이후 시드기야의 행동을 보면 하나냐 측에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드기야는 반 바벨론파를 따라 바벨론을 반역했다(왕하 24:20; 대하 36:13).¹⁸ 결국 그는 바벨론의 보복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원래 그의 성격이 매우 나약했다고 하며 어떤 학자는 그의 성격을 묘사하기를 ‘빠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¹⁹ 그 또한 여호야김과 같이 애굽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애굽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를 포기했다(렘 37:7). 결국 그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같이 바벨론 코드를 읽지 못함으로써 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시드기야의 뒤를 이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달라는 반바벨론파에 속한 이스마엘 무리들에 의해 암살되는 바람에 유다는 정치적인 구심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렘 41:3). 유다의 멸망과 관련하여 예레미야는 신랄하고 분명하게 유다의 왕정이 나라에 닥친 재난에 가장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렘 21:1-23:8). 나아가 왕 외에 다른 고위 관리들 또한 예루살렘 몰락의 운명과 왕국의 극단적인 쇠퇴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했다(렘 23:9-40).²⁰

17 김주환, “거짓예언자와의 논쟁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예레미야서 27-29장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15권 1호 (2021년 4월), 84.

18 정중호, 윗글, 189.

19 김희보, 윗글, 23. 김재구, 윗글, 18. 12-40. 시드기야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면 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수동적인 특성이 있다(렘 21:1-2; 37:3, 17; 38:5). 그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수동적인 무반응의 소유자였다.

20 로날드 클레멘츠, 『예레미야』 (김회권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10), 222. 원제는 Ronald E. Clements, *Jeremiah*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2).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가장 날카로운 요점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참고, 렘 1:18-19).

그러면 조선은 남유다와 다른가? 조선 또한 왕과 고위 관리들이 남유다와 동일하게 여러 세력들이 각축하는 국내 및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²¹ 이미 왕권은 오랫동안 진행된 세도정치의 결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 세도정치의 특징은 한 마디로 정치의 사유화로서 정부 요직의 독점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맞물려 조선 후기에 유약한 왕들이 왕위에 오름에 따라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²² 이것을 뒤집고자 집권한 흥선 대원군(1820-1898년)의 정책 또한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었다.²³ 나아가 그가 외척을 배제하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선택한 며느리 명성왕후(1851-1895년)²⁴도 권력분열에 가세하였고 그 중간에서 고종(1852-1919년/재위 1863-1907년)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어려웠다.²⁵ 그러나 성년이 되어 왕권을 행사하게 된 고종과 여흥 민씨 세력은 국정을 전담하고 있는 대원군 세력과 마찰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중에 고종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대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성왕후와 민씨 척족의 정치적 역할이 점차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고종과 대원군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마침내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충돌로 비화되었다. 조선 말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두 사람이 약 30년 동안 고종을 사이에

21 김정호, 硯畵, 29-32.

22 이민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한계성”, 『동학연구』 11집 (2002년 2월), 4, 1-29.

23 강상규,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연구: 왕실 내 정치적 긴장관계의 구조와 과정”,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 (2006년 6월), 46. 고종은 대원군이 주도하고 있는 배외정책이 시대적인 대세를 무시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조선이 점점 고립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불만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24 이민원, “명성왕후와 갑오당”, 『역사와 실학』 32집 (2007년 6월), 712, 699-716. 고종과 명성왕후의 관계는 唇亡齒寒의 관계로 볼 수 있다.

25 강상규, 硯畵, 27-49, 34. 대원군과 고종은 효의 원리와 충의 원리가 부딪히는 미묘하고 불편한 정치적 관계에 놓여있었고,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이런 상황은 현실정치 의 장에서 고종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심각한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두고 정치적으로 권력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조선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이에 강상규는 이런 정치적인 긴장구도가 본질적으로 조선의 유교적 정치지형에서 왕권의 특별한 구조적 위상과 고종의 왕위계승의 비정상적 승계과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⁶ 그러다보니 세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들이 각기 파벌을 이루는 바람에 나라는 나아갈 방향을 상실한 배처럼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렸다. 나아가 지도세력인 양반사회의 당쟁은 관직쟁탈과 연관됨으로써 지도층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분열은 요동치는 국제정치질서 아래에서 곧 나라의 쇠망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선의 예가 분명히 보여준다.²⁷ 이리다보니 그들은 조선의 주위에 몰려드는 여러 열강 가운데 누가 바벨론 코드를 갖고 있는지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거의 갖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층은 고려 말과 조선 중기에 일어났던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기울어가는 청나라에 기대는 우를 범했다.²⁸ 즉 과거 기울어가는 원나라와 명나라의 길을 걷는 청나라를 의지하는 바람에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 일본을 좌시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분열로 치닫는데 비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바벨론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²⁹

26 강상규, *읽글*, 46.

27 량치차오, *읽글*, 86-105. 저자 자신의 나라(중국)의 역사를 고찰하며 조선의 멸망의 원인을 기술하는데, 지도층의 아둔함과 분열이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일으키는지 잘 보여준다.

28 박은식, *읽글*, 146-149. 특히 박은식은 갑오동학란은 그 허물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농민에게 돌리고 청나라에 원병을 청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일대전이 시작하게 되었다. 고종과 명성왕후 지배하의 정부는 외국세력에 의존함으로써 그 존립을 피하려는 의타적인 태도를 노정하였다.

29 이승만, *읽글*, 89-91.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유대와 조선 두 나라의 정치상황은 그 구심점인 왕권이 매우 취약해서 나라의 방향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강하게 다가오는 외부세력의 간섭으로 그 왕권이 왜소화 및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었다.³⁰

2) 경제적 측면

다음으로 유대와 조선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경제란 인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물질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경제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핵심 낱말은 공동체라는 용어이다. 즉 경제는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정상적인 삶을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는 균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재화의 적절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면 사회가 분열하기 시작한다. 물론 경제라는 한 요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정치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경제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 정점에 왕이 있다는 점이 왕정의 큰 약점이다. 그의 행동이 일으키는 나비효과와는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그 왕의 행동을 모방하는 지도층이 일반 백성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화의 유통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즉 부정적인 미메시스(mimesis/모방)가 일어나 경제의 균형의 토대가 되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30 윗글, 160. 결국 위기 때마다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우리 왕권을 무시하고 내정을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중일전쟁(1894-1895년, 러일전쟁(1904-1905년)의 승리를 통해 일본은 조선을 강제 합병(1910년 8월 29일)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서영희, 「일제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러일전쟁에서 한일병합까지」(서울: 역사비평사, 2012), 70-72.

이런 상황이 유다 말기와 조선 말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는 불과 3개월간 왕위에 있었지만 그 악행이 심했다(왕하 23:32).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악한 행정을 했는지 에스겔은 애가에서 그를 가리켜 ‘사람을 삼키는 사자새끼’라고 일갈하였다(겔 19:1-4).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 또한 전자에 못지 않다. 그는 자신을 왕위에 올린 애굽에 은과 금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왕하 23:35). 이에 그는 바로의 요구에 따라 은을 바치기 위하여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 재산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를 위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내놓아야 했다. 이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임상국은 신명기 사가의 비판을 인용한다(왕하 24:4; 렘 5:26-29).³¹ 나아가 그는 왕궁의 복합건물확장을 위하여 재원을 낭비하였다(렘 22:13-15). 이에 예레미야는 왕이 많은 자유시민들을 자기의 궁궐확장과 중건공사에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동원하여 사실상 노예 신분으로 강등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한다(렘 22:13).³² 이것은 세금납부의 형식으로 강요된 일종의 강제노역으로서 왕실을 섬기는 노역으로 충당되었음을 가리킨다. 이런 여호야김의 악정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강하게 비판을 가하였다(렘 22:13-17). 왕정의 본질과 왕의 의무들과 관련하여(렘 22:3) 예레미야가 선포한 비난의 요점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 왕실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혹독한 세금을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여호야김의 경우에서 보듯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들이 자연스럽고 불의와 착취의 장본인이 되었다(삼상 8:11-17). 이처럼 왕이 자

31 임상국, “요시야의 사회종교개혁과 예레미야의 『초기예언』”, 『신학과 세계』 101호 (2021년 12월), 20-21.

32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447. 원제는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신의 권력을 사유화 할 경우 재화의 분배가 불균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왕과 관련된 지배계층의 재산과 일반백성의 자산 격차는 점점 벌어져 사회적 분열 가운데 가장 나쁜 수평적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긴 분열된 국력은 외부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한편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가 나쁜 이유를 갖고 노예를 풀어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기원전 588-587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던 동안에 일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이 포위망을 풀자 앞서 지도층들이 나서서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³³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⁴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포하였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인 스바냐 또한 당시 지도층인 방백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타락과 탐욕을 강하게 비판한다(슥 3:1-4). 이들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울부짖듯이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다. 윤동녕은 이 가운데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인 지도층을 언급하며 이들이 도시 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한다.³⁵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와의 심판 날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다(슥 1:18). 이들은 거짓저울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다. 이런 경제적 관습은 이 당시뿐

33 정중호, *윗글*, 191-195, 178-201. 정중호는 크게 신앙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경제적 이유, 그리고 시드기야의 왕권 강화 등을 그 이유로 기술한다.

34 로날드 클레멘츠, *윗글*, 311.

35 윤동녕, “예루살렘의 지도층을 향한 스바냐의 예언”, 『선교와 신학』 39집 (2016년 6월), 229-230.

만 아니라 아모스와 미가가 지적했듯이 나라전체에 만연하였다.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심히 역겨운 것으로서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

한편 유다와 비교할 때 19세기 말 조선의 상태는 어떤가? 19세기 전반부 동안 진행된 세도정치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및 집중은 정치의 문란을 초래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왔다. 왜냐하면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에게서 염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기구는 마치 관리들의 사재를 불리기 위한 험잡기관으로 변해버렸다. 이로 인해 당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전정, 군정, 환곡 등 소위 삼정은 극도의 문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³⁶ 따라서 19세 후반에 민란이 빈번히 발생한 것은 비정상적인 경제 질서의 왜곡화 때문이었다.³⁷ 국가 공무원의 부정으로 말미암은 조세제도의 문란은 선순환 되어야 할 경제소득의 분배시스템을 붕괴시켰다.³⁸ 조선 정부와 법률의 체계는 국왕이 백성의 아버지이며 지배자라는 관념 위에 세워져있다. 말하자면 국왕의 손에 백성들의 모든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모든 관리는 백성이 아니라 국왕에게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런 질서 하에서는 관리의 일차적 관심사가 사리를 탐하고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기에, 백성들

36 이기백, 「한국사 신문」(서울: 일조각, 1988), 297.

37 김진봉, 「임술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학연구」 19호 (1967년 4월), 126, 89-128. 저자 또한 19세기 접어들면서 빈번하게 된 외척의 세도정치가 정치, 경제, 사회 등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인사제도의 문란이 대소 관료로 하여금 부정과 불법을 자행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것이 국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 농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었다.

38 김동노, 「근대와 식민의 서곡」(과주: 창비, 2009), 21. 김동노,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운동의 전환」, 「한국사회학」 41집 1호 (2007년 2월), 198. 1862년부터 1893년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농민운동을 발생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85% 정도가 지방관리와 이서계급의 조세부정과 약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며 자신의 업무수행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³⁹ 이렇게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균형감각 없이 사욕을 갖고 전체를 지배할 경우 온갖 종류의 해악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조선이란 경제 공동체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토지제도는 지배층인 양반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었다. 따라서 19세기 말엽 농민들이 자주 민란을 일으킨 까닭은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경제시스템, 즉 불합리한 세금제도 때문이었다.⁴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국가의 재정 수입원인 전정, 군정, 환곡은 극도로 문란한 지경에 빠져있었는데, 이것은 허수아비 같은 왕을 내세우고 뒤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반세기에 걸쳐 오랫동안 이루어진 세도정치 탓이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의 대부분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고 지주는 대부분 양반이었다. 소작농민은 세금을 내지만 양반은 내지도 않았다. 나아가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대부 계급은 부귀영화를 위해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다.⁴¹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양반들이 경제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⁴² 소위 일반 백성들의 미메시스(모방) 대상인 노블

39 제이콥 로버트 무스, 「1900. 조선에 살다」(문무홍 외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8), 243. 원제는 Robert J. Moose, *Village life in Korea* (Franklin Classics, 2018).

40 한국사에서는 1885년부터 1895년 사이에 많은 폭동이 발생했던 때를 소위 '민란의 시기'라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지배층이 주 수입원인 농민을 착취하는 심히 왜곡된 조세 제도에 있었다.

41 박제형, 「근세조선정감」(이익성 옮김), (서울: 탐구당, 2016), 22-24.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신복룡 역주), (서울: 집문당, 2000), 174, 259. 원제는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Slusser Pree, 2011).

42 조지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1894」(이복기 옮김), (서울: 살림출판사, 2009), 63. 제임스 스카렛 게일,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1888-1897」(최재형 옮김), (분당: 책비, 2018년), 66, 각주 34. 원제는 James Scarth Gale, *Korean Sketches* (Generic: 2018). 조선시대의 계급제도는 크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뉜다. 양반은 공부하여 상놈을 다스려서 먹고 살고, 상놈(상민)은 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개념이 있었다. 양반은 벼슬을 하지 않아도 직접 노동을 하는 법이 없으며, 중인은 역관, 의원, 화원 등 특수 업무

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요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의 활력을 떨어뜨려 전체 국력에 심한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흥선 대원군이 왕권을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경복궁을 복원한 것은 유다의 여호야김의 행위에 버금간다.⁴³ 또한 흥선과 민왕후 그리고 고종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사리추구행위는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⁴⁴ 특히 1882년 일어난 임오군란의 원인도 여흥 민씨 척족의 수탈이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의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유다와 조선의 경제, 특히 분배와 노동 문제를 살펴보면서 국부의 근간인 산업 활동이 쇠약하게 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의 전반적인 체계가 붕괴상태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종교적 측면

마지막으로 유다와 조선이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한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은 외관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 구성원의 깊은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그들의 정신세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관찰하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회관습의 양태와 흐름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다. 사상이란 사고 작용의 결과로

를 수행하였다. 또한 천민(중, 노비)은 관아 또는 양반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노동, 즉 돈을 주고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상놈을 의미한다. 즉 상놈은 일을 하는 계층이었다.

43 한보람, “고종의 친정선포와 정국의 동향”, 『한국학논집』 88집 (2022년9월), 69-104, 88. 이와 관련하여 부정적 여론은 1868년(고종 5년) 최익현의 상소에 의해 본격화된다.

44 이사벨라 버드 비숍, 『윗글』, 357-358.

얻어진 체계적 의식내용, 또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세계관이나 논리적 판단체계이며, 종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한다.

우선 유다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삼아온 시온 신학⁴⁵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준비에 큰 공헌을 하였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함에 따라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하게 여호와의 도시가 되었다.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가 시온, 즉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기에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른바 시온신학이 정립되고 이것은 대대로 전통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게 함락될 위기에 놓였다가 이사야의 권고에 힘입은 히스기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기원전 701년). 이로 인해 성전과 도성과 국가의 신성불가침성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교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 이런 교의 배후에 더욱 오래된 신학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으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에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의 전통에 대해 유다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강한 민족주의적인 애착에 대해 비판했다. 사람들은 이 시온신학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즉 시온 신학이 이상화의 위험에 빠진 것이다.⁴⁶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삶은 진정한 시온 신학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⁴⁷ 결국 시온 신학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화

45 서재덕, 윗글, 14-40. 권혁승, “하나님 왕권의 관점에서 본 시온신학연구: 시온신학의 형성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6집 (1999년 10월), 92.

46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I』 (노명식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90), 408. 원제는 Arnold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47 여호와 종교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가족과 사회질서의 정당한 유지를 뒷받침하는 반면에 백성들이 기웃거렸던 바알 종교는 본질적으로 죽음과 재생의 신화를 재현하는 성

석화되었다.

이에 예레미야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며 도구 역할을 하는 성전이 바로 현실적인 영적 각성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그는 국가와 성전의 파멸을 선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순전함 및 진실성과 상관없이 종교제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은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성전, 도성, 국가의 신성불가침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교의로 자리 잡았다. 이런 신학적 낙관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과거 아시리아의 산헤립을 물리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쳐부수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의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소를 포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불변의 공식적인 신학이 가장 왜곡된 형태로 개가를 올렸고 또한 백성들은 다윗 언약에 따라 성전과 도성과 나라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공허한 자신감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렘 5:12; 7:14; 14:13).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직화된 국가신학은 막상 다가온 압박한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난 후 신명기 계열의 사서들을 통해 민족의 흥망성쇠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요구조건들에 대한 백성들의 성실 또는 불성실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저작의 저자는 공식적인 신학 이면에 신명기에 표명된 시내산 언약의 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신학의 정당성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⁴⁸

유다에 시온 신학이 있다면 조선에는 유학(주자학)이 있었다. 후자는 공자의 사상에 충실하고 특히 효의 원리로서 도덕사회를 지향하겠

적인 행위들을 내포하는 제의들을 통하여 준 마술적인 생명력의 추구에 몰두한다.

48 존 브라이트, 윗글, 458.

다는 것이다. 즉 인간다움의 도덕적 가치와 예의를 중시하는 것이다.⁴⁹ 사회가 혼란할 때 질서를 강조하는 유학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즉 계층구분을 통한 지도력 확립으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현실적 필요성이 조선 초기에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학은 국내의 정국이 불안하고 기존계층의 가치가 위협을 받을 때 주도계층에서 크게 환영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특히 조선조의 유학은 치자 위주의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학은 사대부 중심의 이론으로 변질되고 나아가 관념 철학적이 되어버렸다.⁵⁰ 그것은 실리보다 명분을 중요시 했다. 결국 이 사대부 계급은 조선 말기로 오면서 순수성과 창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⁵¹ 유학에서 강조하던 도덕적인 사대부 계급이 유명무실해지고 사라진 것이다. 나아가 이런 도덕 철학이⁵² 일반백성의 삶과 분리되었다는 점이 치명

49 김준석, “조선시기의 주자학과 양반정치”, 『역사와 실학』 17,18집 (2000년 1월), 207-208. 191-226. 삼강오륜으로 집약되는 인륜질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및 사회가 지탱하는 공적 질서의 원천이었고 양반사대부는 이를 숭순수범해야하는 주체였다. 유교 주자학에서는 世帶 및 가족 내부의 질서, 즉 父子-夫婦-長幼의 관계로 구분되는 인륜이라는 혈연질서를 원천적인 것으로 하고 이 토대 위에 다시 마을이나 고을 사회를 규제하는 地緣질서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혈연질서는 가족-마을-고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쌓아올려져 마침내 국가 정치 질서까지도 이 윤리의 차원에서 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마치 가족이라는 인륜의 기본단위가 수없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이 윤리의 집약체였다. 양반 사대부는 바로 이러한 혈연의 사적인 윤리가 사회 및 국가의 공적질서로 환원하는 과정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인성과 행위가 사대부 중심의 정치 메카니즘(mechanism)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0 박은식, 윷글, 161-162. 제임스 스카렛 게일, 윷글, 230, 각주 130.

51 아놀드 토인비, 윷글, 426. 따라서 백성들은 이들 지배적 소수자들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게 된다. 지도자의 창조성이 고갈함과 동시에 미메시스도 정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희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철학”, 『통일인문학』 37집 (2001년 9월), 13.

52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의 유학』 (조남호 옮김), (서울: 소나무, 1999), 15. 주자학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관료의 인격을 완성시켜서 국가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적인 약점이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인간의 도덕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 특히 일반 백성에 대한 도덕권을 생각 하지 않았을까? 유학의 지류인 주자학과 양명학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돈다. 양반만 도덕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일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덕은 개인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런 점이 간과되었을까? 이런 면에서 조선의 유학은 치자 중심의 정치철학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지배자(양반)와 피지배자(상민)의 극단적인 분리로 나타나게 되었고 백성은 존재의미를 상실하면서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⁵³

한편 유학의 시간관은 과거 지향적인데, 언제나 요순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등장한다. 이렇게 미메시스가 과거를 향한 사회에서는 관습이 지배하고 사회발전은 정지하게 된다.⁵⁴ 이밖에 문제가 된 것은 유교의 도덕적 질서 원리에 연원을 둔 조상숭배다. 이것은 조선 유교의 거점⁵⁵으로서 조혼, 극단적인 남아선호, 축첩, 여성비하 등 온갖 종류의 악습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결국 조선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은 생동성을 상실하고 사회를 경화시켜 치자와 백성의 영혼의 생기를 질식시켰다. 흥선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편견도 임금도, 아버지 없는 사교에 지나지 않는 천주교 사상은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에는 백해무익하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런 그의 의식은 정치에도 나타나 외국과의 교역에 문을 닫아버리는 정책으로 이어

53 박은식, *윳글*, 138-139. 이승만, *윳글*, 43-44.

54 아놀드 토인비, *윳글*, 87. 266. 성장 과정에 있는 사회는 미메시스의 방향이 창조적 인물들을 향한다. 근대화를 일찍 지향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5 유동식, “한국의 기독교와 조상숭배문제”, 『신학논단』 17집 (1987년 6월), 263. 261-269. 조선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의 집약적 표현인 제사를 부정하는 것은 곧 유교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행위이다. 정덕재, 『프랑스인의 눈에 비친 한국』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0), 199, 204. 조상숭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집착은 무속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유교사상의 영향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져 일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온신학과 유학을 고찰해보면 두 국가의 종교 및 사상은 시간이 갈수록 그 활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두 나라가 갖고 있던 정신 및 사상적 지주는 나라가 망할 당시 그 생기를 상실하고 쇠락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4. 도전과 응전의 실패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남 유다와 19세기 말 조선에 대해 정치, 경제, 종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유다는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급격히 국가의 틀이 무너져 간다. 이후 등장하는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 등 외부세력의 압력에 따라 왕위에 오름에 따라 왕권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왕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나아가 분열된 국내 여론을 통합하기는 고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다보니 경제 시스템도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온 신학도 화석화되어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예레미야가 나서서 죽을 각오로 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계층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⁵⁶

조선 또한 요시아와 비슷하게 강한 왕의 역할을 했었던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은 다음 왕위에 오른 이들은 모두 나이가 어려⁵⁷ 외척의 섭

56 김래용,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27-28.

57 이민수, 윗글, 4, 각주 2).

정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중요한 시기에 왕위에 오른 고종 또한 나이가 어려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국제정세와는 다른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나이가 불행하게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30년 동안 권력욕이 강한 대원군과 명성왕후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바람에 생긴 지도층의 균열은 조선이란 배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참으로 뼈아픈 시기였다. 나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한 민란은 조선의 경제 및 분배구조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반증이었다. 오히려 이 민란의 결정체인 동학농민운동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바람에 향후 대외세력의 협상과정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도층은 보수적인 주자학의 체계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일반 백성들 또한 지배층이 강요하는 유교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 전체적으로 모종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 변화는 바로 외부에서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이에 조선은 다가오는 새로운 물결, 즉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도전에 대해 지혜롭게 응전해야 했으나 그것을 감당하고 이끌어갈 지도자 집단의 좌충우돌적인 분열이 안타깝게 다가온다. 국가란 모름지기 정치, 교육, 법 등을 정신으로 삼고 재정과 군비를 체력삼아 살아있게 되는 실제인데 조선은 이 기준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다.⁵⁸

5. 나가는 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남유다와 19세 말의 조선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망국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운명이란 낱말이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 망국 이후 유다는 자신이 망한 이유를 자신들의 신앙전승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남겨놓았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망국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승화시켜 이후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신학적 자산을 물려주었다. 이에 대해 조선은 나라의 멸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우리 또한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멸망 이야기를 정리해놓았다.⁵⁹ 그러나 이것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잘못을 외부요인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선 안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괴롭힌 일본은 이에 대해 변명만 할뿐 진정한 사과의사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정리할 것인가? 힘들지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드러난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만 왜소해질 뿐이다.

참고 문헌

- 강상규, “명성왕후와 대원군의 정치적 관계연구: 왕실 내 정치적 긴장관계의 구조와 과정”, 『한국정치학회보』 40집 2호 (2006년 6월), 27-49.
- 권혁승, “하나님 왕권의 관점에서 본 시온신학연구: 시온신학의 형성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6집 (1999년 10월), 89-129.
- 김동노, 『근대와 식민의 서곡』 (파주: 창비, 2009).
- 김동노,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운동의 전환”, 『한국사회학』 41집 1호 (2007년 2월), 194-220.
- 김병하, “조선조 말기 경제사상”, 『경제학연구』 25권 (1977년 12월), 69-78.
- 김준석, “조선시기의 주자학과 양반정치”, 『역사와 실학』 17, 18집 (2000년 1월), 191-226.
- 김진봉, “임술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학연구』 19호 (1967년 4월), 89-128.
- 김희보, “요시아 왕의 전사와 유다의 멸망”, 『신학지남』 46(1) (1979년 3월).
- 김래용, “예레미야 25-44장의 메시지: 3단계 구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5집 (2022년 9월), 10-42.
- 김재구,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12-40.
- 김정호, “국권상실의 정치사상적 요인”,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9(2) (2010년 9월), 27-43.
- 김주환, “거짓예언자와의 논쟁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예레미야서 27-29장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15권 1호 (2021년 4월), 67-92.
-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 김한식, “조선조 유학정치이념에 대한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29(3) (1996년 1월), 9-35.
-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의 유학』 (조남호 옮김), (서울: 소나무, 1999).
-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최형욱 엮고 옮김), (파주: 글항아리, 2014).
- 로날드 클레멘츠, 『예레미야』 (김희권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10), 311. 원제 Clements, Ronald, *Jeremiah* (Louisvill: John Knox Press, 2002).
- 박은식, 『韓國痛史』 (김태웅 역해), (서울: 아카넷, 2012).
- 박재형, 『근세조선정감』 (이익성 옮김), (서울: 탐구당, 2016).
- 부남철, “조선조 유교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서구적 연구관점”, 『21세기정치학회보』 15(1) (2005년 5월), 1-21.
- 서영희, 『일제침략과 대한제국의 종말-러일전쟁에서 한일병합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2012).

- 서재덕, “도시와 성전: 시온신학의 기원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76집 (2020년 6월), 14-40.
- 신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집 (2008년 6월), 133-171.
-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I』 (노명식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90), 408. 원제 Toynbee, Arnold J., *A Study of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47).
- 유동기,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바벨론과 예레미야가 보도하는 바벨론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23권 4호 (2016년 12월), 143-175.
- 유동식, “한국의 기독교와 조상숭배문제”, 『신학논단』 17집 (1987년 6월), 261-269.
- 윤동녕, “예루살렘의 지도층을 향한 스바냐의 예언”, 『선교와 신학』 39집 (2016년 6월), 213-240.
- 이기백,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1988).
- 이민수, “홍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한계성”, 『동학연구』 11집 (2002년 2월), 1-29.
- 이민원, “명성왕후와 감고당”, 『역사와 실학』 32집 (2007년 6월), 699-716.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신복룡역주), (서울: 집문당, 2000). 원제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rs*, (Slusser Pree, 2011).
- 이승만, 『구한말 동북아 정세와 대한제국의 최후』 김충남 역해, (서울: 화산문화, 2010).
- 이희학, “조상(사자) 숭배와 구약성서의 애도의식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2004년 7월), 83-103.
- 임상국, “요시아의 사회종교개혁과 예레미야의 『초기예언』”, 『신학과 세계』 101호 (2021년 12월), 9-46.
- 임희완,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철학”, 『통일인문학』 37집 (2001년 9월), 3-24.
- 정덕재, 『프랑스인의 눈에 비친 한국』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0).
-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78-201.
- 제이콥 로버트 무스, 『1900. 조선에 살다』 (문무홍 외 옮김), (서울: 푸른역사, 2008). 원제 Moose, J. Robert, *Village life in Korea* (Franklin Classics, 2018).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원제 Bright, John,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한보람, “고종의 친정선포와 정국의 동향”, 『한국학논집』 88집 (2022년 9월), 69-104, 88.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1985).

검색어

유다의 멸망, 조선의 운명, 분배 정의, 시온신학, 유학

www.kci.go.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Perspectives about the Fall of Southern Judah and the Destiny of Joseon: Centering on Jeremiah

Hyung Yo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aim of this study is theologically to look for the way to escape from trauma and grasp the cause of collapse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comparison of southern Judah in Jeremiah with the Joseon Dynasty in 19th century in view of politics, economy, and religion. The study is carried mainly in biblical and historical resources. In relation to its contents and range, the first factor is the political side. It makes a ver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one country. It is tried which decisions both countries made in politics. As a result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ir political leaders showed the divisive figure in crisis. Secondly, in the economic part the distributive justice can be seen. The prophets of the Hebrew Bible and the pioneers of Joseon deplored the reality that it would not be fulfilled in each country. As the study indicates, the entire economic system of both countries was under the collapse that the normal economic activities could not be carried. The third factor is religion, for southern Judah's Zion theology and for Joseon Confucianism. It is related to the mental direction of one community and decides its spiritual state. And the ideological ground of both countries was under the deterioration and its vitality was lost. In general, the crisis

www.kci.go.kr

which shook the nation came ab extra, however before then they had critical internal problems in politics, economy, religion and therefore lost their belief that they could overcome a crisis.

key words

Collapse of Judah, Destiny of Joseon, Justice of Distribution,
Theology of Zion, Confucianism

투고일: 2023년 01월 27일

심사일: 2023년 02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2월 16일

www.kci.go.kr